

한국어판 Alexithymia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 SSPS(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와 TAS(Toronto Alexithymia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 - *

한진희*** · 이성필** · 이수정** · 도규영**
홍승철** · 김은혜*** · 김광수** · 유태열**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Alexithymia Scale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SPS (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 and TAS(Toronto Alexithymia Scale)*

Jin-Hee Han, M.D.,**† Sung-Pil Lee, M.D.,** Soo-Jung Lee, M.D.,**
Kyu-Young Do, M.D.,** Seung-Chul Hong, M.D.,** Eun-Hye Kim, M.D.,***
Kwang-Soo Kim, M.D.,** Tae-Yul Lew,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3(2) : 147-158, 1995* —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two widely used self-report measure of alexithymia-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SSPS) and Toronto Alexithymia Scale(TAS), and present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ed to an Korean college student sample(N=206).

TAS showed moderate to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with 0.26 of mean item-total correlation and 0.754 of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hile those parameters for SSPS turned out inconsistent. However, results of test-retest reliability for both scale were excellent. Factor analysis revealed four factors for TAS and three factors for SSPS ; the four-factor structure of TAS was quite congruent with previously known alexithymia construct, while, again, SSPS showed intermixed factor structure. TAS scores correlated fairly well with somatization scores enough to get concurrent validity while SSPS scores did not.

Overall, Korean version of TAS demonstrated well matched findings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ial validity with original and Spanish version of TAS. Th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version of TAS could be a useful and reliable tool for the measurement in Korean population.

KEY WORDS : Alexithymia · TAS · SSPS · Reliability · Validity.

*본 연구는 1995년도 성빈센트병원 교수연구비의 일부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Supported in part by 1995 Academic Fund of St. Vincent Hospital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uwon, Korea

***Clinical Fellow,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UCLA, Los Angeles

†교신저자 : 한진희, 442-0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 성빈센트병원 정신과

(전화, 0331-40-2146 전송, 0331-258-2723)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Ha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t. Vincent Hospital, # 93 Chi-dong, Pal-dal-ku, Suwon, Kyunggi-do 442-060, Korea

서 론

“Alexithymia”라는 용어는 “no words for mood(혹은 emotion)” 즉, 내면적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합성어로서 1970년대 초반에 Harvard 의대의 Sifneos 및 Nemiah 등에 의해 입상에 도입된 개념이다(Nemiah 와 Sifneos 1970 ; Sifneos 1972 ; Sifneos 1973).

Alexithymia는 질병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가들의 관찰과 경험에 의해 도출된(heuristic) 특수한 형태의 정신구조로서 가치를 가지며, 당시 임상적 난제로 되어있던 정신신체장애 환자의 정신치료와 관련하여 이론적 공백의 틈을 메꾸어 줄 모델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미 위궤양이나 기관지 천식 등 소위 고전적 정신신체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던 일단의 정신분석가들 사이에는 이들에게서 빈번히 관찰되는 정서적 단절, 공감 능력의 결핍 및 상징성의 결여 등 alexithymia와 유사한 양상에 관하여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Marty와 de M'uzan 1963 ; Ruesch 1948). 따라서 alexithymia의 개념은 발표되자마자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임상가들의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얻게되었고, 이러한 특성이 곧 정신신체장애 환자의 중요한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alexithymia 모델에 입각하여 많은 임상적 검증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정신신체장애의 alexithymia 가설에 대한 추시와 다른 정신질환들에서의 alexithymia 특성에 대한 연구, alexithymia의 발생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Lesser 1981 ; Taylor 1984 ; Taylor와 Bagby 1988).

Alexithymia는 개인의 인지-정서적 특성(cognitive-affective style)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이를 임상적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alexithymia 이에 대한 기준의 설정과 적절한 평가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 임상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alexithymia의 특징적 양상은 1) 내면적 감정의 경험 또는 언어적 표현의 곤란, 2) 감정과 다른 신체적 지각과의 혼동, 3) 환상 및 공상 등 상징성의 부재, 4) 외부지향적 기계적 사고방식 등으로 요약된다(Nemiah 등 1976 ; Sifneos 1972 ; Taylor 1984).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alexith-

ymia는 일종의 경험적 개념이므로 그 개념의 정확한 기술이 쉽지 않으며 그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의 임상적 관점과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alexithymia 척도가 개발되어 왔는데 아직 국내에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이방면의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alexithymia 측정도구중 임상 및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자기보고 형태의 척도인 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이하 SSPS) (Apfel과 Sifneos 1979)과 Toronto Alexithymia Scale(이하 TAS) (Taylor 등 1985)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alexithymia 척도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일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학과 2, 3학년 및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본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220명이며,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하여 자료분석에서 제외된 사람은 16명이었다. 최종적으로 남은 연구대상은 206명(남자 113명, 여자 93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3.0±2.0세였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alexithymia 측정도구는 SSPS(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와 TAS(Toronto Alexithymia Scale)의 2가지이다. 이 두개의 척도는 현재 임상 및 연구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자기보고형 alexithymia rating scale들이지만 각 척도의 개발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즉, SSPS는 단기 정신요법을 제창하기도 한 미국 Harvard 의대의 Sifneos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개의 문항은 이들의 임상경험과 관찰에 의거 선택된 것들이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전적으로 그렇다’까지 4단계의 Likert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부록 1). TAS는 당시 캐나다 Toronto 의대 정신과에서 주로 자문 연계(consultation-liaison) 분야의 임상연구를 해오던 심리학자 출신의 Taylor와 Bagby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처음부터 정신계량학적(psychometric) 측정이론

과 기존의 alexithymia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모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모두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단계 평정척도이다(부록 2).

번역은 저자들이 직접하였고 수차례의 예비 적용을 통해 자구수정을 하였다. SSPS의 국문번안은 이미 국내의 다른 연구(오홍근 등 1986)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일부 내용은 수정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은 문항의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항 전체 상관도(item-total correlation)와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보았고, 시간경과에 따른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56명을 대상으로하여 2주간격으로 검사 재검사(test-retest)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타당도(validity) 검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척도가 alexithymia의 개념적 하부구조를 반영하는지를 알아 보았고, SCL-90(symptom checklist-90)의 국내판인 간이진단검사(김광일 등 1984)의 신체화차원 소항목(somatization subscale,

이하 SCLS) 점수와의 상관도를 측정하여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요인추출과 분석에 SAS PC version을, 내적일치도 및 기타의 분석에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상관도는 Pearson의 상관계수로 나타냈고 내적일치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를 구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하였다.

연구결과

SSPS와 TAS의 영문 원문(原文)과 국문 번역판은 부록에 예시하였다.

1. 문항 전체 상관도(item-total correlation)

SSPS의 문항-전체 상관도의 범위는 0.10~0.37이며 평균치(average)는 0.08이었다. 상관도가 0.2이하로 낮게 나타난 문항은 전체 20문항중 14문항이었다. TAS의 문항 전체 상관도는 0.11~0.58 범위에 있으며 평균치는 0.26이었다(Table 1).

2.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내적 일치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와 반분비교(split-half)법에 의한 일치도계수를 계산하였는데 Cronbach 알파계수의 경우 SSPS는 0.254, TAS는 0.754를 얻었다. 함께 시행한 SCLS의 경우는 0.882였다. Split-half 계수는 Cronbach 계수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Table 2).

3. 검사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2주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검사를 시행하여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SSPS는 항목별로 Pearson의 상관계수 0.18~0.73 범위에 있었고 전체문항 점수에 대한 상관계수는 0.76 ($p < 0.05$) 이었다. TAS는 항목별로 0.28~0.78의 범위였으며 전체점수로는 0.84 ($p < 0.05$)였다(Table 3).

4.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척도내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SAS 프로그램을

Table 1. Item-total correlation of SSPS & TSA

SSPS item	Item-total corr.	TAS item	Item-total corr.
1.	0.12	1.	0.31
2.	0.05	2.	0.11
3.	0.16	3.	0.25
4.	0.17	4.	0.41
5.	0.16	5.	0.16
6.	0.26	6.	0.31
7.	0.32	7.	0.28
8.	0.13	8.	0.58
9.	0.25	9.	0.17
10.	-0.04	10.	0.29
11.	0.19	11.	0.29
12.	0.18	12.	0.56
13.	0.37	13.	0.25
14.	0.04	14.	0.45
15.	0.27	15.	0.26
16.	0.26	16.	0.18
17.	0.05	17.	0.27
18.	-0.10	18.	0.13
19.	0.18	19.	0.37
20.	0.15	20.	0.39
		21.	0.27
		22.	0.51
		23.	0.26
		24.	0.21
		25.	0.57
		26.	0.61

mean inter-item correlation : SSPS=0.08, TAS=0.26

Table 2. Internal reliability of SSPS & TAS

	Cronbach's alpha	Split-half
SSPS	0.254	0.246
TAS	0.754	0.790
SCLS	0.882	0.864

Table 3. Test-retest reliability of SSPS & TAS

SSPS item	Reliability coeff.	TAS item	Reliability coeff.
1.	0.46*	1.	0.42*
2.	0.73*	2.	0.58*
3.	0.51*	3.	0.73*
4.	0.24	4.	0.53*
5.	0.69*	5.	0.48*
6.	0.46*	6.	0.75*
7.	0.42*	7.	0.28
8.	0.57*	8.	0.58*
9.	0.51*	9.	0.41*
10.	0.49*	10.	0.75*
11.	0.50*	11.	0.42*
12.	0.18	12.	0.36*
13.	0.49*	13.	0.31
14.	0.32*	14.	0.36*
15.	0.56*	15.	0.78*
16.	0.34*	16.	0.61*
17.	0.72*	17.	0.75*
18.	0.62*	18.	0.51*
19.	0.63*	19.	0.37*
20.	0.45*	20.	0.44*
		21.	0.58*
		22.	0.39*
		23.	0.64*
		24.	0.43*
		25.	0.66*
		26.	0.54*
Total	0.76*	Total	0.84

*p<0.05

이용하여 scree plot을 그렸으며 SSPS는 scree plot상 2개의 요인이 eigenvalue > 1의 조건을 만족하였고, TAS의 경우 4개의 요인이 이 조건을 만족하였다(Fig. 1). 그러나 SSPS에서 3번째 요인의 eigenvalue가 0.95로 1.0에 근접하고 있어 이를 제3의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추출된 3개 요인의 eigenvalue는 각각 요인 1=1.75, 요인 2=1.36, 요인 3=0.95였고 이들 3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전체의 약 34%였다(Table 4). TAS에서는 4개 요인의 eigenvalue가 각각 4.75, 2.05, 1.44, 1.13이었고 이들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전체의 48%였다(Table 5). 각 요인간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SSPS와 TAS에서 모두 내부 요인간의 상관성은 적었다.

각각의 요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요인부하가 0.3 이상인 항목들로 추출한 결과를 보면, SSPS에서 요인 1에는 3개 항목이, 요인 2에는 6개 항목이, 요인 3에는 3개 항

Table 4. SSPS factor loadings(N=206)

Item	Factor loadings		
	1	2	3
		-0.06	-0.08
		-0.17	0.65
(1)	0.61	0.31	-0.18
(2)	0.17	0.19	-0.08
(3)	0.09	-0.02	-0.02
(4)	0.05	0.27	0.34
(5)	-0.01	0.39	0.11
(6)	0.02	0.03	-0.06
(7)	-0.20	0.31	0.20
(8)	0.26	-0.19	-0.09
(9)	0.41	0.18	-0.05
(10)	-0.07	0.29	-0.12
(11)	-0.13	0.48	-0.03
(12)	0.04	-0.12	0.02
(13)	-0.03	0.49	0.30
(14)	0.70	0.39	-0.53
(15)	-0.22	0.13	0.17
(16)	-0.23	-0.13	0.13
(17)	-0.10	1.36	0.95
(18)	-0.56	1.75	1.36
(19)	-0.06	1.36	0.95
(20)	0.10	1.36	0.95
eigen values	1.75	1.36	0.95
% of total variance	13.98	11.55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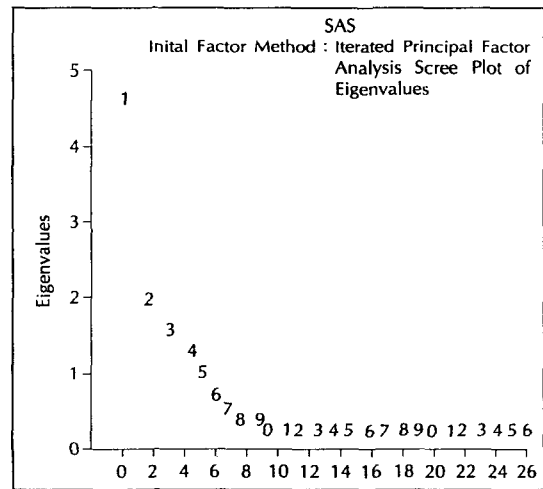


Fig. 1. Scree plot of TAS factor loading.

목이 포함되었다. 문항9는 요인 1과 요인 2에, 문항7은 요인 2와 요인 3에 중복 포함되었다. TAS의 경우에는 요인 1에 9항목, 요인 2에 7항목, 요인 3에 5항목, 요인 4에 5항목이 각각 포함되었다. 이중 문항 8과 문항 25는 요인 1과 요인 2에 중복되었다.

Table 5. TAS factor loadings(N=206)

Item	Factor loadings			
	1	2	3	4
(1)	0.31	0.17	-0.04	0.13
(2)	0.01	-0.11	0.52	-0.06
(3)	0.18	0.42	-0.10	-0.09
(4)	0.53	0.24	-0.03	-0.09
(5)	-0.15	-0.04	0.53	0.08
(6)	-0.00	0.55	-0.05	0.05
(7)	0.14	0.03	0.04	0.44
(8)	0.36	0.59	-0.03	0.23
(9)	-0.16	0.23	-0.01	0.21
(10)	0.61	-0.00	-0.18	-0.01
(11)	-0.06	0.05	-0.03	0.64
(12)	0.17	0.77	0.05	0.16
(13)	0.14	0.03	-0.00	0.47
(14)	0.43	0.29	0.01	0.13
(15)	-0.02	0.23	0.44	0.13
(16)	-0.22	-0.20	0.68	-0.00
(17)	0.68	-0.06	-0.17	-0.05
(18)	-0.06	-0.11	0.82	-0.10
(19)	0.18	0.16	-0.06	0.54
(20)	0.69	0.12	-0.22	0.05
(21)	-0.01	0.10	0.17	0.17
(22)	0.29	0.64	-0.02	0.08
(23)	0.05	0.55	-0.04	-0.05
(24)	0.03	-0.18	0.09	0.39
(25)	0.62	0.40	-0.05	0.14
(26)	0.62	0.15	0.10	0.22
eigen values	4.75	2.05	1.44	1.23
% of total variance	20.34	13.07	9.90	8.15

5.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SSPS 및 TAS의 점수와 SCL-90의 신체화 소항목(SCLS) 점수간에 상관분석을 한 결과 SSPS는 SCLS와 약한 음의 상관을($r=0.07$), TAS와 SCLS는 $r=0.34(p < 0.05)$ 의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 7). 한편 SSPS와 TAS 점수간에도 $r=0.21(p < 0.05)$ 의 음의 상관을 나타냈다.

고찰

Alexithymia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본연구에서 사용된 SSPS와 TAS 같은 자기보고형 척도(Self-Report Scale) 이외에도 관찰자 평가척도(Observer-Rated Questionnaire), 투사적 기법(Projective

Table 6. Inter-factor correlation matrix

Factor	<SSPS>			Factor	<TAS>			
	1	2	3		1	2	3	4
1	1.00			1	1.00			
2	-0.03	1.00		2	0.31	1.00		
3	-0.11	-0.09	1.00	3	-0.18	0.09	1.00	
				4	0.19	0.25	0.03	1.00

Table 7. Inter-scale correlation matrix(concurrent validity)

Scale	SSPS	TAS	SCLS
SSPS	1.00		
TAS	-0.21*	1.00	
SCLS	-0.07	0.34*	1.0

* $p < 0.05$

Technique), 이야기내용 분석법(Verbal Content Analysis) 등 다양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관찰자 평가척도로는 상당한 숙련을 필요로 하며 평가자간의 신뢰도가 확보된다면 아마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는 자유면담 방식의 Beth Israel Hospital Psychosomatic Questionnaire(BIQ)(Apfel과 Sifneos 1979)를 비롯하여 BIQ를 단축시켜 구조적 면담으로 개발된 Alexithymia Provoked Response Questionnaire(APRQ)(Krystal 등 1986) 등이 있고, 투사적 기법으로는 기존의 임상심리학적 검사법인 Rorschach 검사(Acklin과 Bernet 1987) 및 Thematic Apperception Test(TAT)(Taylor와 Doody 1982)를 이용하는 경우와 상징적 회화법을 응용한 Objectively Scored Archetypal Test(SAT9)(Demers-Desrosier 등 1982, 1983; Cohen 등 1983, 1985)등이 있다. 이야기내용 분석법은 감정적 자극상황을 제시하거나 자유면담에서 얻어진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정서적 의사소통의 장애유무를 평가한다(von Rad 등 1977; Lolas 등 1981). 또 Gottschalk-Gleser의 방법으로 알려진 좀 복잡한 체계의 검사법도 있다(Gottschalk 1974; Gottschalk와 Glesser 1969). 이밖에 자기보고형 alexithymia 척도에는 SSPS와 TAS 이외에도 MMPI 항목에서 뽑아 개발한 MMPI-A(Kleiger와 Kinsman 1980)와 같은 측정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척도들 역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가 어렵고 임상적 적용이 쉽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한진

회(1993), Taylor와 Bagby(1988)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참고하는게 좋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판 SSPS와 TAS의 신뢰도 검증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SSPS의 평균 문항-전체 상관계수 0.08, Cronbach alpha 계수 0.254로 내적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Table 1, Table 2). 이러한 결과는 이미 이전의 연구들(Bagby 등 1986, 1988; Norton 1989)과 일치되는 소견으로 SSPS의 문항들간에 내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정신계량학적 척도로서의 사용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SSPS를 개발한 Apfel과 Sifneos(1979) 역시 SSPS는 단독보다는 임상관찰척도인 BIQ와 함께 사용하기를 권고한바 있다. 반면에 TAS의 경우 평균 문항 전체 상관계수 0.26, Cronbach alpha 계수 0.754로서 원저자들이 시행한 Canada sample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며(Bagby 등 1988; Taylor 등 1985) 임상적 척도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는 SSPS가 $r=0.76(p<0.05)$, TAS $r=0.84(p<0.05)$ 로 두 척도 모두 재현성의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상기 외국의 자료들과도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요인분석은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의 측면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들이 alexithymia의 이론적 구조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나 하는 측면을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된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 with iteration)의 결과를 scree test(Cattell 1978)를 이용하여 주요인을 추출한 후 이를 varimax 회전시켜 얻은 것이다. 요인추출의 기준은 eigenvalue가 1.0 이상인 경우로 하였으나 1.0에 근접한 제 3의 요인을 주요인에 포함시킨 것이다. 추출된 요인은 SSPS가 3개 요인, TAS가 4개 요인이다. Nunnally(1978)의 지침대로 요인부하가 0.3 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요인의 속성을 살펴본 결과, SSPS에서는 요인 1에 문항 1, 9, 4, 요인 2에 문항 3, 7, 9, 13, 15, 16, 요인 3에는 2, 7, 16이 해당되었다. 요인 1은 '언어표현의 곤란', 요인 3은 '행동화'에 관련된 사항으로 어느정도 규정지을 수 있으나 요인 2는 '공상'에 관련된 부분과 '행동화'에 관련된 부분이 뒤섞여 있어 일관성 있는 특성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gby 등(1986, 1988) 및 Norton(1989)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한

편 TAS에서 요인부하가 0.3 이상인 문항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에 문항 1, 4, 8, 10, 14, 17, 20, 25, 26, 요인 2에 문항 3, 6, 8, 12, 22, 23, 25, 요인 3에는 문항 2, 5, 15, 16, 18, 요인 4에는 문항 7, 11, 13, 19, 24가 각각 해당되었다. 요인 1은 '주관적 감각과 감정경험의 혼동', 요인 2는 '감정표현의 곤란', 요인 3은 '공상의 빈곤', 요인 4는 '기계적 사고'로 각 요인들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다. 이 결과는 Taylor 등(1985), Bagby 등(1988)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alexithymia의 이론적 구조와도 잘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가지 차이점은 본연구에서의 요인 1은 Taylor 등(1985)의 연구에서 추출된 4 요인중 두번째 요인에 해당되며 감정의 인식에 관련된 요인들이 신체지각에 관한 문항들과 합쳐져 요인 1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인부하의 순위는 Bagby 등(1988)의 연구에서도 본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바 있다. 이상에서 TAS는 SPSS에 비해 매우 안정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ylor 등(1985)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의 비교척도로서 SCL-90의 신체화차원 소척도인 16문항의 SCLS를 가지고 척도간 상관도를 측정하였는데 SSPS는 SCLS와 $r=-0.07(p<0.1)$, TAS는 SCLS와 $r=0.34(p<0.05)$ 를 나타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신체화 경향이 클수록 TAS 점수와 양의 상관관, SSPS 점수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 갖는다는 것이다. TAS는 점수가 높을수록 alexithymia의 특성이 증가하며 SSPS는 그 반대의 채점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도표에서 보듯이 TAS와 SSPS가 음의 상관관 갖게됨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SSPS와 SCLS간에 상관성이 매우 낮아 공인타당도를 지지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들(Bagby 등 1988; Taylor 등 1985)과도 일치하는 소견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자기보고형 alexithymia의 측정도구중 대표적인 SSPS와 TAS를 국문판으로 개발하여 한국인에게 적용한 결과 TAS가 SSPS에 비해 문항의 내적 일치도 및 요인타당도등 제반 정신계량학적 측면에서 훨씬 우수함을 보여주었고 그 내용도 서양인을 대상으로한 연구들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TAS는 스페인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체코 및 인도어 등의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Parker 등 1991), 일례로 스페인어판을 사용한 타당도 연구

에서(Rodrigo와 Lusiardo 1992) alpha 계수=0.80의 내적 일치도 및 본 연구에서와 같은 4 factor solution의 요인구조를 나타내 이러한 alexithymia의 특성이 문화권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속성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가 대학생층의 정상인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신과 및 정신신체질환을 갖는 내과계환자를 포괄하지 못하였고, 정신계량학적 normative data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연구의 한계이지만 한국어판 TAS의 경우 향후 임상적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Taylor와 Bagby 등은 TAS의 문항중 '공상'에 관련된 문항들을 삭제시킨 20문항의 단축형 TAS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중인데(Bagby 등 1994) 20문항 TAS의 한국어판 개발과 기존 TAS의 임상연구가 현재 본교실에서 진행 중이다.

결 론

한국어판 Alexithymia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SSPS)과 Toronto Alexithymia Scale(TAS)을 한국인 대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내적 일치도는 SPSS가 문항-전체 일치도 0.08, Cronbach alpha계수 0.254이었고 TAS는 문항-전체 일치도 0.26, Cronbach alpha계수 0.754를 나타냈다.

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SSPS가 0.76($p < 0.05$), TAS가 0.84($p < 0.05$)이었다.

3) 요인분석 결과 SSPS는 3개의 요인, TAS는 4개 요인구조를 나타냈고 TAS가 SSPS에 비해 더욱 alexithymia의 이론적 구조에 부합되었다.

4) TAS가 SSPS보다 신체화 척도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공인타당도를 나타냈다.

5) 한국어판 TAS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영문판 및 스페인어판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 한국어판 TAS는 한국어판 SSPS에 비해 문항의 내적 일치도 및 요인 타당도에서 안정된 구조를 나타냈으며, 향후 한국인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Alexithymia · TAS · SSPS · 신뢰도 · 타당도.

REFERENCES

- 김광일 · 김재환 · 원호택(1984) :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오홍근 · 이 식 · 김현우(1986) : 정신과 자문환자의 Alexithymia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5 : 280-287
- 한진희(1993) : Alexithymia의 평가. 정신의학 18 : 77-99
- 한진희 · 이수정 · 도규영 · 김은혜 · 김광수 · 유태열(1992) : Alexithymia 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 SSPS(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와 TAS(Toronto Alexithymia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제 35차 추계학술대회 구연발표
- Acklin MW, Bernat E(1987) : Depression, alexithymia and pain-prone disorder : A Rorschach study. J Pers Assess 51 : 462-479
- Apfel RJ, Sifneos PE(1979) : Alexithymia : Concept and measurement. Psychother Psychosom 32 : 180-190
- Bagby RM, Parker JDA, Taylor GJ(1994) :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 item selection and cross-valid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J Psychosom Res 38 : 23-32
- Bagby RM, Taylor GJ, Ryan DP(1986) : The measurement of alexithymia : Psychometric properties of 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 Compr Psychiatry 27 : 287-294
- Bagby RM, Taylor GJ, Atkinson L(1988) : Alexithymia : A comparative study of three self-report measures. J Psychosom Res 32 : 107-116
- Cattell RB(1978) : The Scientific Use of a Factor Analysis in the Behavioral and Life Sciences, New York, Plenum
- Cohen KR, Auld F, Demers-Desrosiers LA, Catchlove RFH(1985) : Alexithymia : The development of a valid and reliable projective measure(the Objectively Scored Archetypal9 Test). J Nerv Ment Dis 173 : 621-627
- Cohen KR, Demers-Desrosiers LA, Catchlove RFH(1983) : The SAT9 : A quantitative scoring system for the AT9 test as a measure of symbolic function central to alexithymic presentation.

- Psychother Psychosom 39 : 77-88
- Demers-Desrosiers L(1982) : Influence of alexithymia on symbolic function. Psychother Psychosom 38 : 103-120
- Demers-Desrosiers LA, Cohen KR, Catchlove RFH, Ramsay RA(1983) : The measure of symbolic function in alexithymic pain 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39 : 65-76
- Gottschalk LA(1974) : Qua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indicators of emotions : The content analysis of speech and other objective measures of psychological states. Int J Psychiatry Med 5 : 587-610
- Gottschalk LA, Glesser GC(1969) :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State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Verbal Behavior.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leiger JH, Kinsman RA(1980) : The development of an MMPI Alexithymia Scale. Psychother Psychosom 34 : 17-24
- Krystal JH, Giller Jr EL, Cicchetti DV(1986) : Assessment of alexithymia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omatic illness : Introduction of a reliable measure. Psychosom Med 48 : 84-94
- Lesser IM(1981) : A review of alexithymia concept. Psychosom Med 43 : 531-543
- Lolas F, von Rad M, Scheibler D(1981) : Situational influences on verbal affective expression of psychosomatic and psychoneurotic patients. J Nerv Ment Dis 169 : 619-623
- Marty P, de M'Uzan M(1963) : La "pensee operateire". Revue Francaise de Psychanalyse(suppl) 27 : 1345-1356
- Nemiah JC, Freyberger H, Sifneos PE(1976) : Alexithymia : A view of the psychosomatic process, in Modern Trends in Psychosomatic Medicine, Vol.2, edited by Hill, O., London, Butterworths
- Nemiah JC, Sifneos PE(1970) : Affect and Fantasy in Patients with Psychosomatic Disorders, in Modern Trends in Psychosomatic Medicine, Vol. 2, edited by Hill, O., London, Butterworths
- Norton NC(1989) : Three scales of alexithymia : Do they measure the same thing ? J Pers Asses 53 : 621-637
- Nunnally JC(1978) : Psychometric Theory, 2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Parker JDA, Taylor GJ, Bagby RM, Thomas S(1991) : Problems with measuring alexithymia. Psychosomatics 32 : 196-202
- Rodrigo G, Lusiardo M(1992) : Factor structure of a Spanish version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 Psychother Psychosom 58 : 197-201
- Ruesch J(1948) : The infantile personality. Psychosom Med 10 : 134-144
- Sifneos PE(1972) : Short-term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risi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ifneos PE(1973) : The prevalence of "alexithymic" characteristics in psychosomatic 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22 : 255-262
- Taylor GJ(1984) : Alexithymia : Concept,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 J Psychiatry 141 : 725-732
- Taylor GJ, Bagby RM(1988) : Measurement of alexithymia :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Psychiatr Clin North Am 11 : 351-366
- Taylor GJ, Doody K(1982) : Psychopathology and verbal expression in psychosomatic and psychoneurotic 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38 : 121-127
- Taylor GJ, Doody K(1985) : Verbal measures of alexithymia : What do they measure. Psychother Psychosom 43 : 32-37
- Taylor GJ, Doody K, Newman A(1981) : Alexithymic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s. Can J Psychiatry 26 : 470-474
- Taylor GJ, Ryan DP, Bagby RM(1985) : Toward the development of a new self-report alexithymia scale. Psychother Psychosom 44 : 191-199
- von Rad M, Lalucat L, Lolas F(1977) : Differences of verbal behavior in psychosomatic and psychoneurotic 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28 : 83-97

□부 록□

한국어판 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SSPS)

*다음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가), (나), (다), (라) 중 자신에 해당되는 항목 한가지만 골라 적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 비교적 그렇지 않다 (다) 비교적 그렇다 (라) 전적으로 그렇다

-
- 1)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바를 표현하기가 힘들다.
 - 2) 불쾌한 일을 당하면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다.
 - 3)* 흔히 꿈의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
 - 4)* 감정은 삶을 가치있게 하는 것이다.
 - 5) 심리 영화보다 액션물을 더 좋아한다.
 - 6) 나 자신의 기분상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편이다.
 - 7)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 알기알부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쪽이다.
 - 8) 대개의 경우 인생은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9)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 10) 나는 매사에 세심한 사람이나 자세히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 11) 나는 좌절할 때가 아닌 한 거의 울지 않는다.
 - 12)*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 13) 나는 공상을 거의 하지 않는다.
 - 14) 느끼는 것을 바르게 말로 표현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 15)* 따로 할일이 없을 때는 공상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
 - 16)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 17)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흥분하는 편이 아니다.
 - 18) 나로서는 어떤 사건을 자세히 표현하는게 쉽다.
 - 19) 나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한다.
 - 20)* 나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
-

*negatively-keyed items

[Scoring : (가)=4, (나)=3, (다)=2, (라)=1]

한국어판 Toronto Alexithymia Scale(TAS)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오른쪽의 1~5 중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에 V표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 거의 그렇지 않다 (2) 비교적 그렇지 않다 (3)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4) 비교적 그렇다
(5) 거의 그렇다

-
- 1)* 올때는 항상 내가 왜 우는지 안다.
 - 2) 공상에 잠기는 것은 시간낭비다.
 - 3) 나는 부끄러움을 좀 덜 땀으면 좋겠다.
 - 4) 자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혼동한다.
 - 5)* 자주 미래에 대한 공상을 한다.
 - 6)* 나는 비교적(다른 사람들 만큼) 쉽게 친구를 사귀는 편이다.
 - 7) 문제의 해답을 아는 것이 해답을 얻게 되는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8) 내 기분(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 9)*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입장을 알려주고 싶다.
 - 10) 의사들마저 이해못하는 신체적 감각을 느낀다.
 - 11)*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
 - 12)* 내 기분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 13)* 어떤 문제를 단지 묘사(기술)하기 보다는 분석해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 14) 기분이 상했을 때는 내가 슬픈건지, 놀랜건지, 화가 났는지 분간이 안된다.
 - 15)*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 16)* 따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다.
 - 17) 종종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 18) 나는 공상을 거의 하지 않는다.
 - 19)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긴다.
 - 20) 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감정(기분)을 느낀다.
 - 21)*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 22)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 23) 사람들은 나에게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라고 한다.
 - 24)* 사람은 매사를 더욱 깊이 있게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5) 내 마음 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다.
 - 26)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수가 많다.

*negatively-keyed items

[Scoring : (1)=1, (2)=2, (3)=3, (4)=4, (5)=5]

SSPS(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 (영문원본)

- 1) I find it hard to describe how I feel about people
 - 2)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I feel as if I could explode
 - 3)* I often remember the content of dreams very vividly
 - 4)* Feelings are what make life worthwhile
 - 5) I prefer movies with action rather than psychological dramas
 - 6) I do not tend to examine my own feelings
 - 7) I think it is not worth while discussing how one feels : I prefer to act
 - 8) I find life pretty boring most of the time
 - 9) One may say that I lack imagination
 - 10) I like people to be precise and to describe details
 - 11) I hardly ever cry except when I'm frustrated
 - 12)* It is important to find out how one feels about people
 - 13) I daydream rarely
 - 14) I find it hard to find the right words for my feelings
 - 15)* I spend much time daydreaming whenever I have nothing else to do
 - 16) I prefer taking action rather than thinking
 - 17) I don't seem to get really excited about anything
 - 18) It is easy for me to describe in detail events
 - 19) I prefer to use my left hand
 - 20)* I like people better than things
-

*negatively-keyed items

TAS(Toronto Alexithymia Scale) (영문원본)

- 1)* When I cry I always know why
 - 2) Daydreaming is a waste of time
 - 3) I wish I were not so shy
 - 4) I often get confused about what emotion I am feeling
 - 5)* I often daydream about the future
 - 6)* I seem to make friends as easily as others do
 - 7) Knowing the answers to problems is more important than knowing the reasons for the answers
 - 8) It is difficult for me to find the right words for my feelings
 - 9)* I like to let people know where I stand on things
 - 10) I have physical sensations that even doctors don't understand
 - 11)* It's not enough for me that something gets the job done : I need to know why and how it works
 - 12)* I'm able to describe my feelings easily
 - 13)* I prefer to analyze problems rather than just to describe them
 - 14) When I'm upset, I don't know if I am sad, frightened or angry
 - 15)* I use my imagination a great deal
 - 16)* I spend much time daydreaming whenever I have nothing else to do
 - 17) I am often puzzled by sensations in my body
 - 18) I daydream rarely
 - 19) I prefer to just let things happen rather than to understand why they turned out that way
 - 20) I have feelings that I can't quite identify
 - 21)* Being in touch with emotions is essential
 - 22) I find it hard to describe how I feel about people
 - 23) People tell me to describe my feelings more
 - 24)* One should look for deeper explanations
 - 25) I don't know what's going on inside me
 - 26) I often don't know why I'm angry
-

*negatively-keyed items